

밀교연구 활성화방안 마련

불교총지종 발전안 수립...도제양성 등 교육불사도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안효강)이 종단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안을 내놓았다.

총지종은 현종단의 최대과제인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도제양성을 위한 일환으로 금년 12월까지 교양대학인 총지대학(가칭) 설립에 대한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96년 3월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12월 종보간행소를 설립, 신도들의 신앙체험등을 공유함으로써 화합 도모, 경전강의를 비롯한 논문 등을 게재함으로써 승려와 신도의 효율적 교육과 함께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장단기 계획과 관련 안효강 총리원장은 "향후 종단의 교상 확립에 전념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회활동을 전개, 한국 밀교의 정통종단으로서 위상을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근 기자)



◇ 천명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8엽연화문 수막새기와.

보령 수물지역 천방사지 발굴

공주대 박물관(관장 이해준)은 지난 4월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 보령대 수물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천방사지(天房寺址)와 와요지(瓦窯址)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였다.

발굴팀은 4등분의 사찰 건물터와 12기의 와요지가 백제시대부터 만들어져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출토유물로는 △흙으로 구

대각국사비 탁본 중국서 입수

고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묘비문 해석에 결정적 자료가 되는 대각국사비(개성 소재)의 고려말 탁본인 <고려오관산비명(高麗五冠山碑銘)>이 최근 중국 가덕(嘉德)경매장에서 낙찰돼 국내로 입수됐다.

이완기씨(도서출판 문화재사 대표)가 경매 목록에서 찾아내 매입한 이 탁본은 세로 25.5cm 가로 18cm, 78페이지의 사첩형태로 중국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된 대가 명

장흥사 존재입증 문화재 발견

8만대장경 초판을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고려시대 사찰인 장흥사(長興寺)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20일 진주시 명성면 남성리 312번지 논에서 주민 김성도씨(66)가 소류지 수로공사중 고려중엽대 유물인

매장문화재 첨단장비로 탐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는 다음달부터 물리탐사용 첨단장비를 이용해 땅속 문화재를 탐사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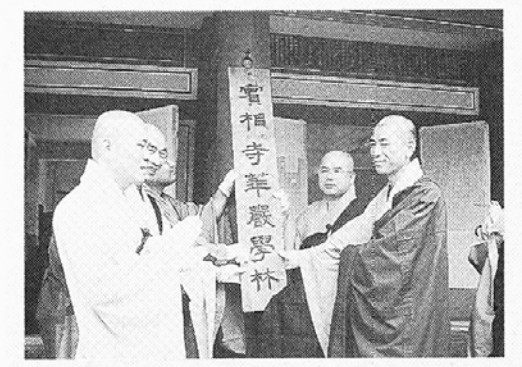
선진국에선 5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매장문화재 지

태고종, 사이판 진혼제 봉행

광복절 맞아 '과거' 교훈삼는 계기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8월 15일 사이판 만세절 벽안에서 '사이판 한국인 전사자 진혼제'를 봉행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진혼제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용돼 희생한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게 되어 박서봉 총무원장을 비롯 종도 2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선우도량 화엄학림 현판식

선우도량 화엄학림 현판식

교계 최초로 전문학림으로 공식 지정된 화엄학림 현판식이 지난 20일 오후 1시 실상사에서 열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도법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을 비롯 현봉(공통대표), 운산(실상사 주지), 원산(조계종 교육원장), 연관(화엄학림 학장), 지선(백양사 주지), 도영(금산사 주지) 스님과 학인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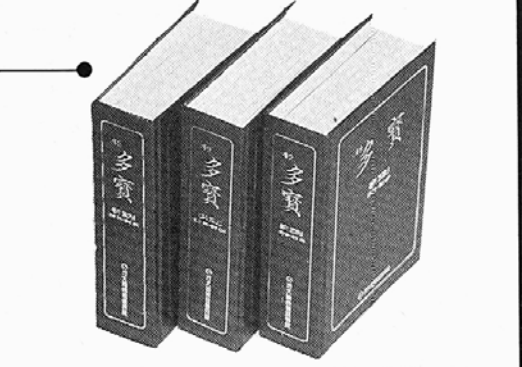
현판식에 앞서 원산스님은 운산, 연관스님에게 화엄학림 운영위원장과 학장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화엄학림은 지난 5일 조계종 교육원에 신청한 화엄학림 설립안이 교육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원으로부터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진리의 전 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름사 부설 인생상담 (02) 579-3033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저희의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 발행/보급: 제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 <多寶> (전화) 02-719-1855



◇천마 재활원 축구부는 지난 26일 장애인 특수올림픽 출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선전을 다짐했다.

천마 재활원 축구부 장애인 올림픽 출전

부산천마재활원(원장 박근현) 축구부가 오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븐시에서 열리는 제9회 장애인 특수 올림픽에 출전키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지난해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1위를 차지,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천마축구부는 주장 이태근 선수를 비롯 8명이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한 대구 선명학교, 3위의 경기도 홀트 일산복지 축구부 5명의 선수와 함께 경기를 펼치게 된다.

천마재활원의 정신지체장애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천마축구부는 지난 2년동안 장우선 코치의 지도아래 열심히 실력을 연마해 왔으며 지난 4월 열린 정신지체인 애호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도 선전을 거

다한 끝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훈련으로 선수들을 지도해온 장우선 코치는 "정신 지체인 선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훈련은 제가 먼저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고 기본기를 지도한 후, 미니연습게임으로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에 대한 흥미를 갖고 축구의 묘미를 스스로 느끼게끔 유도했다"며 연습과정을 설명했다.

올림픽 출전을 한달여 앞둔 지난 6월초부터 20여일간 합숙훈련으로 팀웍을 다지기도 한 천마축구부는 이번 장애인 특수 올림픽에서도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둘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신학종 한마음 수련대회 열려

스승 1백여명 동참 교화 활력 발원

신학종(총리원장 최희광)은 지난 15·16일 양일간에 걸쳐 전북 남원에서 전국 각 심인당 스승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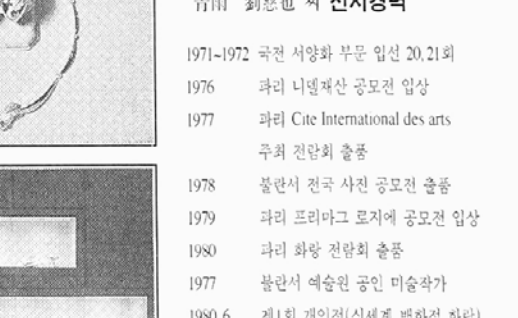
전국 각 심인당 스승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수련법회에서 최희광 총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교화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스승들이 이

기간 방치되어 있고 울 장마에 어찌면 붕괴의 위험마저 있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물론 재정난이다. 총 공사비가 워낙 엄청난데다 불교회관 건립비로 쓰여진, 선분사 깃바위 등의 유용문제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회관의 대공은 오랫동안 두개의 불교로 나뉘어져 있다. 다가 3월 대승적 마음으로 통합을 약속, 대구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치게 나서기로 했다. 신학종이 지금 짓고 있는 매머드 회관과 더불어 대구불교 회관이 명실상부한 대구불교 회관의 중심지가 되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회관공사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

대구주재 기자

회관 공사 재개돼야

조속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심들만 땅이 들고 있는 것이다. 건립 주체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조계종에 회관 증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사선임권 즉, 관리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는 데서 조계종 총무원 또한 손을 못



‘靑雨’ 劉攄也 세 전시경력

-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 21회
- 1976 파리 니델레인 공모전 입상
-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 1978 불림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 1977 불림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 1980 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회랑)
-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이제 당신의 우아함이 깊이를 더해갑니다.’

귀금속 靑雨

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 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靑雨 귀금속은 유행을 넘어선 남다른 아름다움의 깊이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 감각이 함께하는 곳 靑雨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 ~ 5

계간 <多寶>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불교계 유일한 종합 학술정보지 계간 <多寶>가 이번 호(통권 제13호)부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선보입니다.

현실의 계몽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多寶>는 한 걸음 나아가 더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른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에서 발표된 각종 학술 논문 및 각종 기획물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편집형태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문헌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계간 <多寶>를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 (4호간) 20,000원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계)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685-0 (계)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계) 대한불교진흥원
 농협 069-01-197161 (계) 대한불교진흥원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시오.

계간 <多寶> 합본호 보급안내

불교계의 유일한 불교종합학술정보 잡지, 계간 <多寶>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1992년 3월 1일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 1일 제 12호까지 3년간 발행된 잡지를 총 3권으로 묶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합본호로 보급합니다.

합본 1호 (1992년 발행)
 합본 2호 (1993년 발행)
 합본 3호 (1994년 발행)

* 보급가: 각 권당 20,000원